

# 새만금, 글로벌 식품 허브의 시작 연다

새만금청·전북자치도·군산시·입주기업 등, MOU 체결... 풀무원 등 수산 식품기업 총 8곳 총 1300억 투자 약속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내 위치한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의 입주를 앞둔 기업·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는 총 12개 기업이 약 1,7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번에 협약을 맺는 기업은 풀무원 등 마른·조미·김업 3개, 냉동냉장업 1개, 수산물가공업 4개를 포함한 8개 기업으로 총 투자액은 약 1,300억 원이다.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총 13만3,000㎡(4만평)으로 설계 중인 수산 식품 알앤디(R&D) 연구시설 및 협력지원센터, 수산 식품기공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등이 포함된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과 함께 수산물 가공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

수산 식품 기업의 투자 결정은 새만금 지역이 글로벌 식품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간, 새만금지역의 수산물은 낙후된 가공 및 유통 구조로 인해 연간 1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이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내 위치한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의 입주를 앞둔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천억 원에 이르는 다양한 수산물이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내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건설했으며, 이번 기업의 투자는 350여 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글로벌 식품 허브의 시작을 보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으로 위촉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이 입주기업 투자를 통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라며 "이번에 입주하는 업체에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토종 우량기업을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가 서해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제조로 이어져 새만금이 국제 식품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수 공급 시설, 정화시설, 수산식품단지 내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적기에 건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군산=이재춘 기자

## “전북자치도 도민들께 깊은 감사”

미주한인상의 이경철 총회장 “행거주신 세심한 배려에 감동”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지원한 도민에 고마움 전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KACCUSA) 이경철 총회장이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공동대회장이기도 한 이 회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넘어, 전북 도민과 전주 시민의 배려와 환대 덕분에 전 세계 한인 리더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감사의 글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대회 기간 내내 보여준 헌신적인 협력 덕분에 참가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각 단체장들에게 대대적인 수송편을 배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세심히 챙긴 점에 깊은 인상을 표했다.

그는 이러한 지원 덕분에 단체장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회에 모든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한인 비즈니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에서 모인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묵묵히 뒤에서 헌신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경철 총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첫해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북이 한인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막식에서 전통 두루마기를 입고 한국 전통문화를 접목한 퍼포먼스를 통해 전주가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지임을 인상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해 준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회장은 “참가자들이 한인 경제의 미래를 논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 한 분을 중심으로 맞이한 전북도민과 전주시민 덕분에 대회를 더욱 빛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한인 비즈니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도·14개 시군 등, 2024년 충무훈련 실시... 28~31일까지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전북 권역 비상대비 세대 확립 목표로... 대규모 다양한 훈련 진행

지역 단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충무훈련이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도내 일원에서 실시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 제35보병사단 공병대대 등 9개 군부대, 전북경찰서, 중점관리업체, 소방서 등 약 40여개의 기관이 훈련에 참여한다.

충무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 자원의 동원 태세를 점검하는 지역단위 종합훈련으로 특히 이번 훈련은 코로나 19 이후 6년 만에 정상 실시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의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1일차에는 충무계획 3대 기능 수행 능력 검증과 함께 도 및 시군의 충무계획을 검증하고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실태와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기능별 핵심 분야 위주로 상황조치 연습을 진행한다.

충무계획이란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준비하는 범국가적인 비군사적 비상대비계획이다.

2~4일차에는 전시 동원절차 숙달을 위한 실제훈련을 전북경찰청, 부안해

양경찰서 등 도내 15곳에서 전시 동원 자원인 인력·차량·건설기계의 집결 및 인도·인수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4일 차에는 산업동원 물자 생산훈련을 통해 도내 중점관리업체의 단계별 생산능력 점검·확인 등 전시 조달 능력을 검증한다.

아울러 훈련 2·4일 차에는 충무계획 3대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군청 청사 드론 테러 대비훈련과 전시 긴급제출 훈련, 마지막으로 다중이

용시설 테러 대비훈련을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에서 각각 진행한다.

전·평시 발생 가능 상황 등을 가정해 단계별 행동 절차를 익히고 신속한 피해복구 훈련 및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으로 테러 대응태세를 점검한다.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충무훈련을 통해 전시동원계획 실효성을 검증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북 권역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참가자들이 실천에 임한다는 각오로 성실히 훈련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정책간담회 개최

성주류화 확산·여성가족정책 발굴 방안 등 논의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는 28일 김제시청 회의실에서 성주류화 확산 및 여성가족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전북거점양성평등센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제시 여성가족 정책 현황과 수요를 점검하고, 성주류화 분야 정책 의제 발굴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여성정책연구소 운영 계획에 반영, 양성평등정책 및 성주류화제도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유은경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지역의 성주류화 확산 및 여성친화도시 확대를 위해 여성정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제시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는 28일 김제시청 회의실에서 성주류화 확산 및 여성가족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구소는 지난 8월부터 지역의 성주류화 확산 및 여성가족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지정 준비 중인 도내 5개 시·군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도, 2025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12억5000만원 국비 확보

익산·정읍·완주·남원 선정... 복지시설 환경 개선·쉼터 조성

전북특별자치도에 환경과 복지가 융합된 선진형 녹색복지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서 총 4개소가 선정되어 12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복지 나눔숲과 무장애 나눔길이 도내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에 조성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녹색복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익산, 정읍, 완주의 3개 시군이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 5억6,000만원의 국비

를 확보했다. 또한, 남원시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7억원의 지원을 받아 보행 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 정비에 나선다.

산림복지 나눔 숲은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숲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무장

에 나눔길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에도 복지시설 나눔숲 4개소(완주, 진안, 순창, 익창)와 무장애 나눔길 3개소(전주, 익산, 부안)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들 사업은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